



보도 시점 2026.2.20.(금) 13:00
(2026.2.21.(토) 조간)

배포 2026.02.20.(금) 09:00

배경훈 부총리,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 (글로벌 파트너십<GPAI>) 각료이사회 회의 주재

- 싱가포르, 인도, 미국 등 주요국과 정부 간 인공지능 협력 방안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부총리’)은 2월 20일(금) 인도 뉴델리에서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각료이사회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GPAI)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에 기반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의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4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2026년 공동의장국을 맡았다.

부총리는 “인공지능은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가능성 논의를 넘어 책임 있는 활용과 실질적 성과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인재 양성, 현장 중심 실증 확산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GPAI) 주요 업무 ▲전문가 활동 ▲각국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성 제고, 연산 기반 시설(인프라)의 안정적 확보, 정책 실행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부총리는 ▲싱가포르 디지털 개발정보부 장관 ▲인도 전자 정보기술부 장관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간 인공지능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GPAI) 각료이사회에서 공동의장을 맡은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장관과 양국의 우수한 인공지능 환경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도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장관과 인공지능 정상회의 개최와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동반관계(GPAI) 의장국 수임 경험을 공유하며 인공지능 국제표준 및 규범 정립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ios) 실장과 양국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한-미 기술 번영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Technology Prosperity Deal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2025.10.29., 배경훈 부총리 -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 서명)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장	허은영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4363)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 아시아 협력 담당관	책임자	과장	이경림 (044-202-4340)
		담당자	사무관	이차연 (044-202-4342)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